

제 6 회 “세계 식량의 날” 에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제 6 회 세계식량의 날입니다. 국제연합(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979년 제20차 정기총회에서 매년 10월 16일을 “세계식량의 날”로 정하고 인류를 굶주림과 영양실조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범세계적인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몇년째 풍작을 이룩해오고 있으며, '85년 세계곡물생산량은 약17억톤에 달하여 전체인류에게 골고루 분배된다면 세계의 식량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식량공급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지역간 혹은 소득계층간 분배의 불균등으로 한쪽에서는 영양의 과잉섭취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량의 부족과 균형되지 못한 분배는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와같이 세계 어느나라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없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정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농정의 주요지표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두고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과학적 영농방법을 통한 생산성향상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 결과, 제5공화국 출범이후 5년 연속 풍년으로 주곡은 완전히 자급하게 되어 년평균 1,000만석이상의 여유있는 쌀재고를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매의 향상으로 식품소비형태가 다양화, 고급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밀, 옥수수 등 사료 및 공업용 곡물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식량자급도는 '70년에 81%에서 '85년에는 49%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농업정책적 차원을 넘어 한나라의 안보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함을 말해주는 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한톨의
곡식도 아끼는 절약의 지혜를 발휘해야**

즈음한 담화문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다져간다는 목표아래 지속적인 주곡의 자급은 물론, 각종 잡곡류도 자급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생산기반조성을 비롯하여 농업기계화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자 개량등 과학적인 영농의 실천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식량의 증산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의 증대가 우선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한톨의 곡식이라도 아껴야겠다는 소비절약의 자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오늘 뜻깊은 “세계식량의 날”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 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자원을 이용하여 생산가능한 쌀, 보리, 감자, 고구마, 과채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국내부존 식량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겠으며,

둘째, 한톨의 곡식이라도 아끼는 절약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간접적인 식량증산에 기여하도록 합시다.

세째, 또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주의자와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비상시를 대비 항상 비축 식량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은 비록 사소하고 또 귀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모든 국민이 다함께 이를 실천하고 성실히 실천에 옮길때 그것이 바로 애국애족하는 길임을 명심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늘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식량증산에 수고하시는 농어민과 소비절약으로 식생활개선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국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6年 10月 16日

농수산부 장관 황 인 성